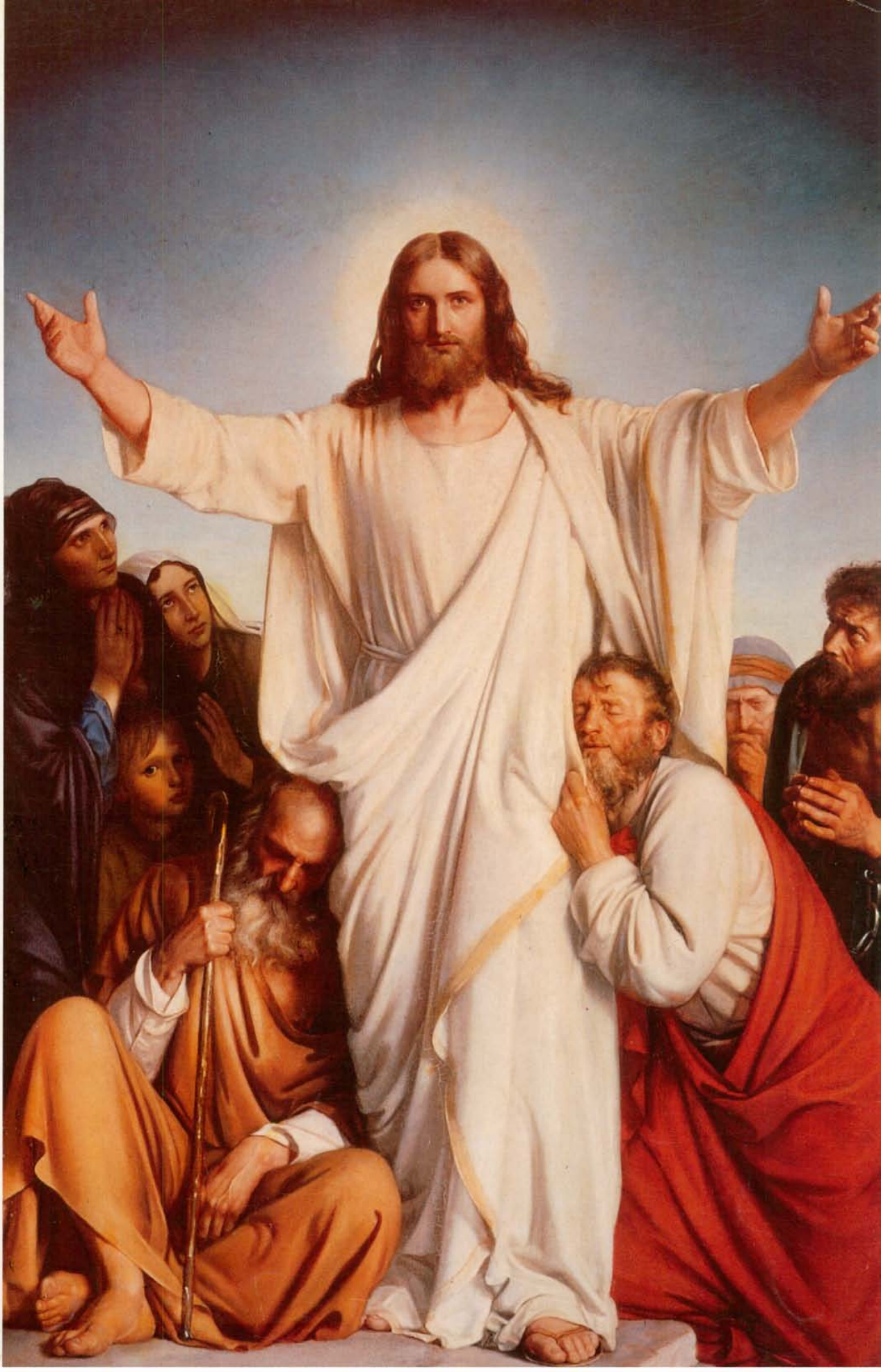


리아호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마루관 : 친구들 · 1999년 4월호



친구들이여



표지 설명
 앞쪽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위안자이신 그리스도/ 수퍼스톡
 뒷쪽 (왼쪽으로부터) 그림: 사이몬 듀이, 쓴 잔: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
 이몬드; 그림: 사이몬 듀이,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배경 그림: 구스티프 도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 2쪽 참조

친구들 표지
 그림: 그레그 케이 울슨, 영원히, 회가와 플로리다 주 베니스 소재 밀 폰
 드 출판사의 허가를 얻어 게재함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0 잘 견뎌 낼 에이 맥스웰 장로
- 18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20 큰차의 새로운 탄생 힐러리 휴프너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가족에게 의로운 원리를 가르침
- 29 어느 쪽이 무거운 짐인가? 졸트 솔트라
- 30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였노라" 엘 알든 포터 장로
- 35 그들의 얼굴이 해답이었습니다 레베카 크리스티
- 36 "성음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우크라이나 체르니코프에서의
교회의 시작 마빈 케이 가드너
- 42 목자, 양 그리고 가정 복음 교사 러셀 엠 넬슨 장로

청소년란

- 7 물론 메시지: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 8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멜리사 랜섬
- 22 질의 응답: 제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26 그는 아직도 사이클 선수이지만 재닛 피터슨

친구들(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철십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5 노래: 나 하늘에서 살았네 재닌 제이롭스 브래디
- 6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조쉬의 꿈인형 마리아와 에릭 존스
- 8 나의 복음 표준
- 10 탐험: 주님을 위한 종려나무 가지 도로시 디 워너
- 12 함께 나누는 시간: 구세주와 구속주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 14 이야기: 실험 웬디 제이 살버노

36쪽 참조



42쪽 참조



10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콘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 치 욱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린, 리처드 비 스크트, 로버트 디 해일즈, 체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켈슨

고문: 제이 이 켈슨, 존 엠 매드슨

교파 파장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톨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헬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리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제작 보조: 코니 셰익스피어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엘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크트 벤 켈렌

선인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테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엠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케이 크리스티슨, 토마스 에스 그로버그, 데니스 커비, 제이슨 엘 윌포드, 디나 엘 소렌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7호, 제 36권, 제 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86

발행일: 1999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희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문구 청문동 7번지

인쇄인: 삼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월간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약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9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함)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pril 1999 vol.36 No.4, LIAHONA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해답을 찾음

어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지도자들을 통해 들려 오는 영감에 찬 말씀들에 귀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과 진리의 근원이 됩니다. 이 잡지에는 개심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고 제가 가진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대판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 대판장님의 1998년 6월호 메시지인 "거듭남"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에서는 미혼이전 기혼이전 간에 우리 여성들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거듭 설명해 줍니다.

엘비라 로페스 테 아이바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오리엔탈 스테이크
빌라 카르멘 와드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됨

약 6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인해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신앙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여 나날이 커져 갔습니다. 그후 구세주께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찾게 해주시고 회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이곳 러시아의 사라토프 시에 들어온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고 교회 회원들은 혼자자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큰 가족의 식구들

입니다.

안나 올리야노바
러시아 사마라 선교부
앵겔스 지부

주님의 음성을 들음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 계신 예언자와 영감 받은 종관리 역원들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들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저는 매달 레프와르(프랑스어 판)를 읽음으로써 주님의 종들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티모스 브왕가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마시나 지방부
마시나 제3지부

편집자주: 저희들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국제판 잡지를 통해 다른 독자와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 요청이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지침상 교회 회원의 이름과 주소를 게재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독자와 기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채택된 것입니다. 교회는 독신 회원들이 서로를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차원의 청소년 및 독신 성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독신성인들이 찾고자 하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국제판 잡지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잡지에서 영감과 인도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래 전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을 때 텍사스의 어느 변호사가 저에게 유타 주에서 발생한 법률 사건 하나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제반 비용을 제 사무실에 수표로 지불하기로 함으로써 이 법률 문제는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텍사스의 그 변호사에게 그대로 보내면서, 사건 처리 비용의 일부를 당연히 우리 사무실로 보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수표를 보냈는데도 그 변호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편지와 전보와 전화로 연락을 해도 몇 달 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돈도 아니고, 만일 그가 약속을 어긴다면 체면상 제가 그 손실액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즉 그를 고소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마태복음 5:44 참조) 진정한 기독교인은 악의를 갖고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구세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악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용당

전역 그림: 서비르 루이, 문선, 노르북 그림, 화가 미상, 십자가에 못박힘

제자 되기 위하여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당시 교회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주님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적절한 때와 장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텍사스에 있는 그 변호사의 복리를 위해 간단하지만 진지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게 좋지 않은 일을 한 누군가의 복리를 위해 기도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즉각적이라고 할 만큼 바로 응답되어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곧이어 텍사스의 그 변호사로부터 항공 우편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약속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 사무실을 닫아야 했지만 지금은 다소 호전되었다는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용서를 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편을 끼치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구세주의 계명을 겸손하게 따르려고 했던 저를 어딘가 모자라든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굳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자(disciple)라는 말의 여러 언어의 어원을 보면 규율(discipline)이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훈련과 자기 통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한결 같이 갖고 있는 영원한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따르면서 그분의 교회를 지상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27)

구세주를 진정으로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어떤 이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가 씻겨졌음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베나민 왕이 물몬경에서 말한 대로 "양심에 평안"을 얻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기도 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를 때 그에게 와서 죽을 것을 명한다.” 교리와 성약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길 두려워 말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찾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 하지 아니 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103:27~28)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치르는 희생은 많은 것들을 뒤로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침례 받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가혹

한 희생인지를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태복음 19:29)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목숨에 관한 한 비이기적이고 영웅적이며 숭고하기까지 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서 귀향한 뒤로는 매일 영원한 원리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하는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담배, 술, 마약 및 그 밖의 비도덕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의 노예가 되어 결국엔 무익한 삶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범법을 버리고 김볼 대관장님이 지칭하신 “용서가 낳는 기적”을 향유해야 합니다. 결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법자의 마음과 가슴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충분한 근심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범한 자가 그 잘못을 뉘우치는 데 필요한 주요 절차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판사는 바로 잘못을 행한 사람의 영감에 찬 감독님이나 지부장님을 뜻합니다. 물론 용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잘못 안에 내재해 있는 속입수를 제거하려면 무엇보다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필수적 요소이자 영적인 이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서 보상이라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이란 간단히 말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가 씻겨졌음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베냐민 왕이 물문경에서 말한 “양심에 평안을”(모사이야서 4:3) 얻음으로써 주어집니다. 하지만 치유를 가져오는 용서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했을 때에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대부분은 제자가 되기 위해 치르는 희생을 너무 힘들고 버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보기보다 그

리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그것을 질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순종일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이 나름대로 값어치가 있는 이상, 또 이 생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하신 구세주의 위대한 약속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희생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치를 수 없는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이며, 그분은 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며, 제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생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예언자들에게 순종하고 충실함으로써, 그분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희생을 온전하고도 기꺼이 치르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복음에 순종하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
2. 순종은 자기 훈련과 자기 통제를 요구하며,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성이다.
3. 순종은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잘 떠를 수 있는 힘을 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 30)
4.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생에서의 평안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신다.



물론 메시지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당신을 위해 살아 계십니다.
(교리와 성약 18:11~12 참조)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멜리사 랜슨

그림: 칼 허인리히 블로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일부, 요헨하겐 스티텐스 미술 박물관 제공
사진 촬영: 펠던 시 앤더슨, 모델이 포즈를 취함

어느 일요일과 조금도 다른 없는 일요일이었다. 나의 가족은 어느 때처럼 성찬 모임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에 도착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듯이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공상에 잠겼다. 나는 가족과 함께 있어 기분이 좋았고 온화하고 평안했다. 그날의 성찬 찬송가는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이었다.

나는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찬송가, 111장)

이 노래의 후렴 부분에 이르렀을 때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입술은 떨렸고 눈물이 뺨에서 흘러내렸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

나는 찬송가를 계속 부를 수가 없었다. 머리를 숙이고 소리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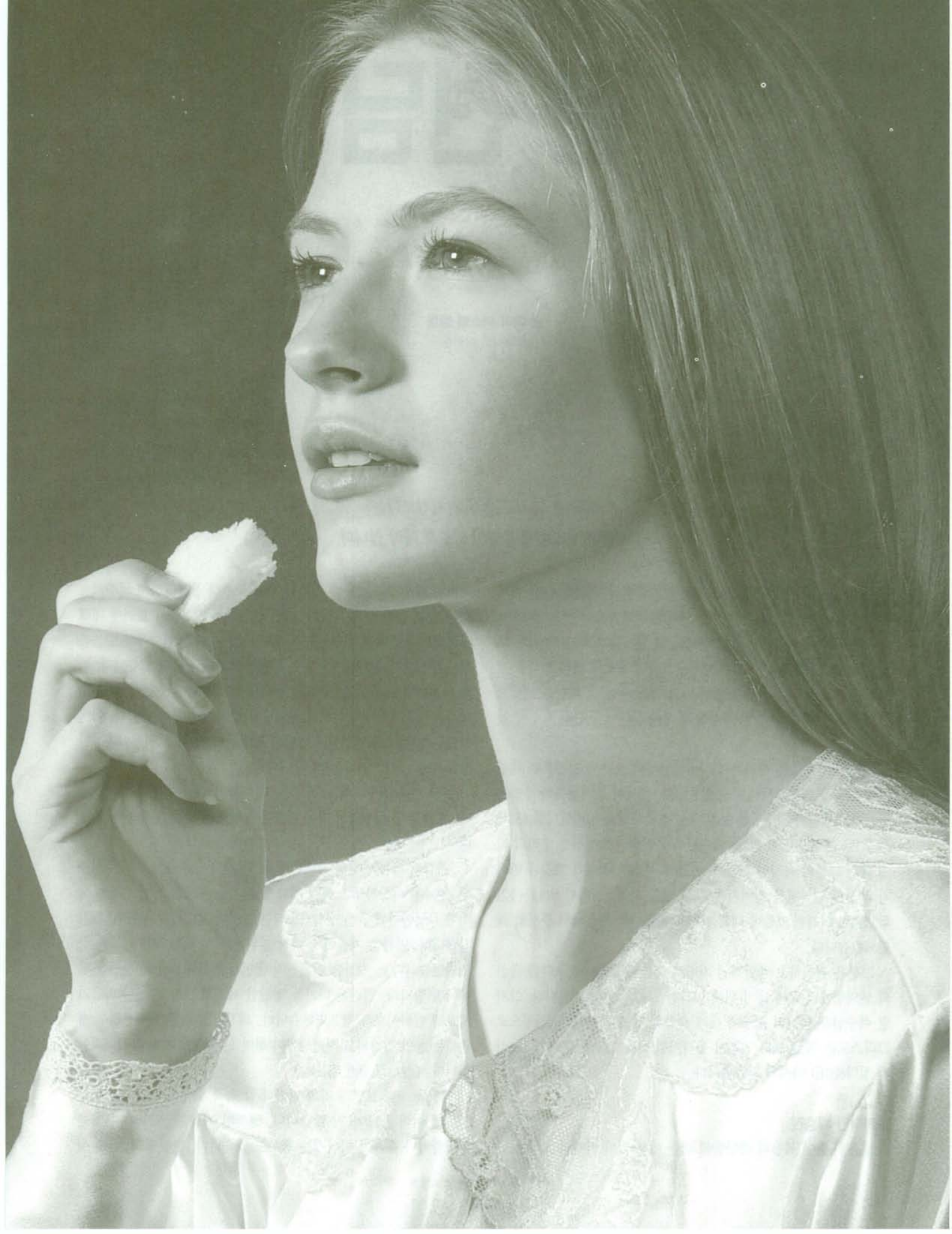
흐느껴 울며 몸을 떨었다.

전에는 느껴 보지 못했던 느낌이 갑자기 밀려들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과 구세주에 대한 감사의 느낌이었다. 나는 성찬대를 바라보았다. 성찬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에게 현실화한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것이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겹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당하셨으며 만인을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다. 그분이 받은 고통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온갖 땀구멍에서 피를 쏟으셨다. 그분은 이 일을 기꺼이 해내셨다. 이 모든 고통을 겪는 동안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 모범인가!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에게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 전에는 구세주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나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 □



잘 견뎌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그저 시련을 거치기보다는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포괄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 없이 인생에서의 시련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것은 3막으로 구성된 연극 중 제2막만 보고 전체를 다 알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시련을 참아 내고 고통 중에 그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된 진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정심으로 에워싸여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증거했듯이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과 사악함을 보고 우셨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모세서 7:28~29, 33, 37 참조) 예수님의 온전하신 동정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속죄와 더불어 스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탄식과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육신을 가지"(엘마서 7:11~12) 심으로써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시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자비로 충만해짐으로써 우리를 육신의 연약함에서 구해 내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높이 올라가셨으니, 이로써 만물을"(교리와 성약88:6) 아시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인 재충전

많은 사람이 복음의 충만함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고통은 물

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관해 불분명하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현대의 예언자들이 교리에 대해 강조하거나 주의를 환기 시키지 않는다면, 고대 예언자들의 말씀은 점차 무시되거나 일상 생활과의 관련성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들을 추가하는 경전들이 없다면, 성경은 점차 덜 읽히거나 그 신뢰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신빙성도 떨어질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교리적인 영양 보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끔씩 저는 인간의 자녀들이 늘 한 가지 교훈을 배우도록 창조된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 생각하노라면 그것이 그다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놓여진 범위 안에서 독립되어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군인들의 말대로 고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다가올 영원한 세계의 모든 존재나 마찬가지로 독립적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독립성은... 생존하는 동안 입증되고 시험받아야 하며 선과 악에 따라 움직여져야 합니다."(설교집, 3권, 316쪽)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뒤에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이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느끼려 하면 곧 황당함이나 유혹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축복 뒤에 이



종은 일과 나쁜 일을 자주 경
험하는 것은 이 짧은 지상
생활을 마감하기까지 꼭 필요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고통을 치르시면서도 자신보다
는 고통을 훨씬 덜받는 우리 모두
에게 최대한의 온정을 보이신다.

런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냥 영을 느끼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낼 것이고, 결국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이 짧은 지상 생활을 마감하기까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고통을 받고 더욱 훌륭하게 발전함

앤 모로 린드버그 여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통 자체가 교훈을 준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고통 하나만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은 이상 세상이 지금보다는 현명해지겠죠. 고통에는 비탄과 이해심과 인내와 사랑과 이로 인해 기꺼이 상처 받겠다는 의지와 열린 마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린드버그의 악몽”에서 인용, *타임지*, 1973년 2월 5일자, 35쪽)

어떤 종류의 고통은 잘 견디기만 하면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에니 스웨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여러 나라 언어를 아는 것과 같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그들을 이해시키는 법을 배웠다.” (닐 에이 맥스웰,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1982년), 123쪽)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한 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히브리서 12:11) 여러분과 저는 징계를 즐거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견디어”(교리와 성약 121:8) 내기는 할 것입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히브리서 12:11) 사람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히브리서 12:11) 맺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로나이는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이더서 12:6) 확신과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에 대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9 참조)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고전학자인 에디스 헤밀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결과는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면 줄수록 고통도 더 큰 법입니다. 악하고 자기 파멸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내하

신 고통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1936년), 112쪽)

수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상하게 돌보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경험도 그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잘 견디는다는 말에는 일상 생활과 관련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 고통 가운데 있으나 무척 온유해진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냥 스쳐 가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22:17 참조) 이로써 우리가 남을 동정하고 생각하는 마음 또한 영원토록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듯 인생은 우리에게 그럴 의사만 있다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하면서 그 결실을 맺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긴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란 들판은 가뭄 가운데에도 늦은 봄까지, 그리고 이른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열심히 경작해야만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낙망만 하면서 씨를 심거나 뿌린 뒤 거두어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경우, 인생은 단순히 “불만스러운 겨울”이 있는 들녘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좌절만 계속되는 업동의 겨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관심하고 건성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거두어들이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맘 흘리며 “열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자들만이 몇 배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29 참조)

우리들이 잘 견디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영대관장님은 예수님과 관련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비슷한 시련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잠시라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264쪽)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과정이 어떻게 연단받아 훌륭하게 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빌립보서 3:10)을 실천한 사람들을 탄생시키는지에 대해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끝없는 봉사과 기쁨과 행복을 향한 큰 능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의 성품을 믿는 신앙

영대관장님은 진정한 신앙은 구세주의 성품과 속죄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앙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집, 13:56 참조) 구세주의 성품은 그 엄청난 속죄를 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그 특출난 성품 없이는 영화로운 속죄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나아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실"(엘마서 7:11)실 만큼 훌륭한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구세주는 그러면서도 유혹에 "개의치 아니하셨"(교리와 성약 20:22)습니다.

영국 작가 시 에스 루이스는 유혹에 저항하는 자만이 진실로 유혹의 권세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셨기 때문에 유혹을 온전히 이해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단순한 기독교[1952년], 124~25 참조) 그분이 유혹에 저항하고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모범에 따라가야 합니다.(니파이삼서 12:48; 27:27 참조)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온정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은 그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지만 자기 연민 같은 것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

수님은 속죄와 관련해 엄청난 고통을 치르시면서도 자신보다 훨씬 덜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겿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의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실 정도로 큰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질려 나간 귀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던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누가복음 22:50~51 참조)

십자가 위에 것처럼 고통스럽게 달려 있으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고 분부하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요한복음 19:26~27 참조) 속죄라는 힘든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도 십자가상의 한 도적에게 예수님이 어떤 확신을 심어 주셨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43) 그분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남을 돌보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생각만 했을 텐데 예수님은 밖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마다 고통을 참는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시면서 각 개인의 필요 사항에 알맞게 권고를 하시는 사랑과 분별력



예수님은 비통해 하는 마음 없
이 역사상 가장 쓴 잔을 취하
셨다.

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이 문둥병자 열 명을 고쳐 주셨지만 그 중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마 호통을 쳤을 텐데 그분은 그 병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누가복음 17:17)고만 물으셨습니다.

복음에 대해 잘 알 아는 한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이란 두 아들에게 다음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주시길 구하자, 그리스도는 다소 나무라는 어조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마태복음 20:22) 예수님은 또한 그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계속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15~17) 세 번째 질문에 가서 베드로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는 성스러운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지시가 동시에 담긴 말씀입니다.

개인의 특별한 필요 상황에 적용될 권고를 하려면 분별하는 힘과 인내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인 관계에서 흔히 보는 것과 같이 남을 돌볼 줄 모르는 비정하고 조급한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세에서 약속하셨듯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교리와 성약 19:19)라는 훌륭한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도 저희 [사도들에게] 교리와 성약 19편의 그 모든 훌륭하고 완벽한 말씀 가운데 특히 영광을 돌린다는 이 표현이 가장 감명 깊게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는 그리스도의 자애심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참아 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예언된 바대로 사람들이 그분께 침을 뱉은 적도 있었습니다.(니파이일서 19:9 참조) 역시 예언대로 그분은 매를 맞거나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니파이일서 19:9; 모사이아서 3:9 참조) 몹시 목마른 중에 쓸개와 신 초를 받으신 적도 있으셨습니다.(시편 69:21 참조)

하지만 예수님은 후일 자신이 겪은 고통에 관한 설명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죄 후에도 그분께서 침 뱉

음을 당했고, 매맞았으며, 초와 쓸개를 받으셨다는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크나큰 근심 가운데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교리와 성약 19:18)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교리와 성약 19:19)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해 하는 마음 없이 역사상 가장 쓴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훗날 영광과 권세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고독함을 이러한 말로 대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교리와 성약 133:50)

무한한 속죄에는 무한한 고통이 필요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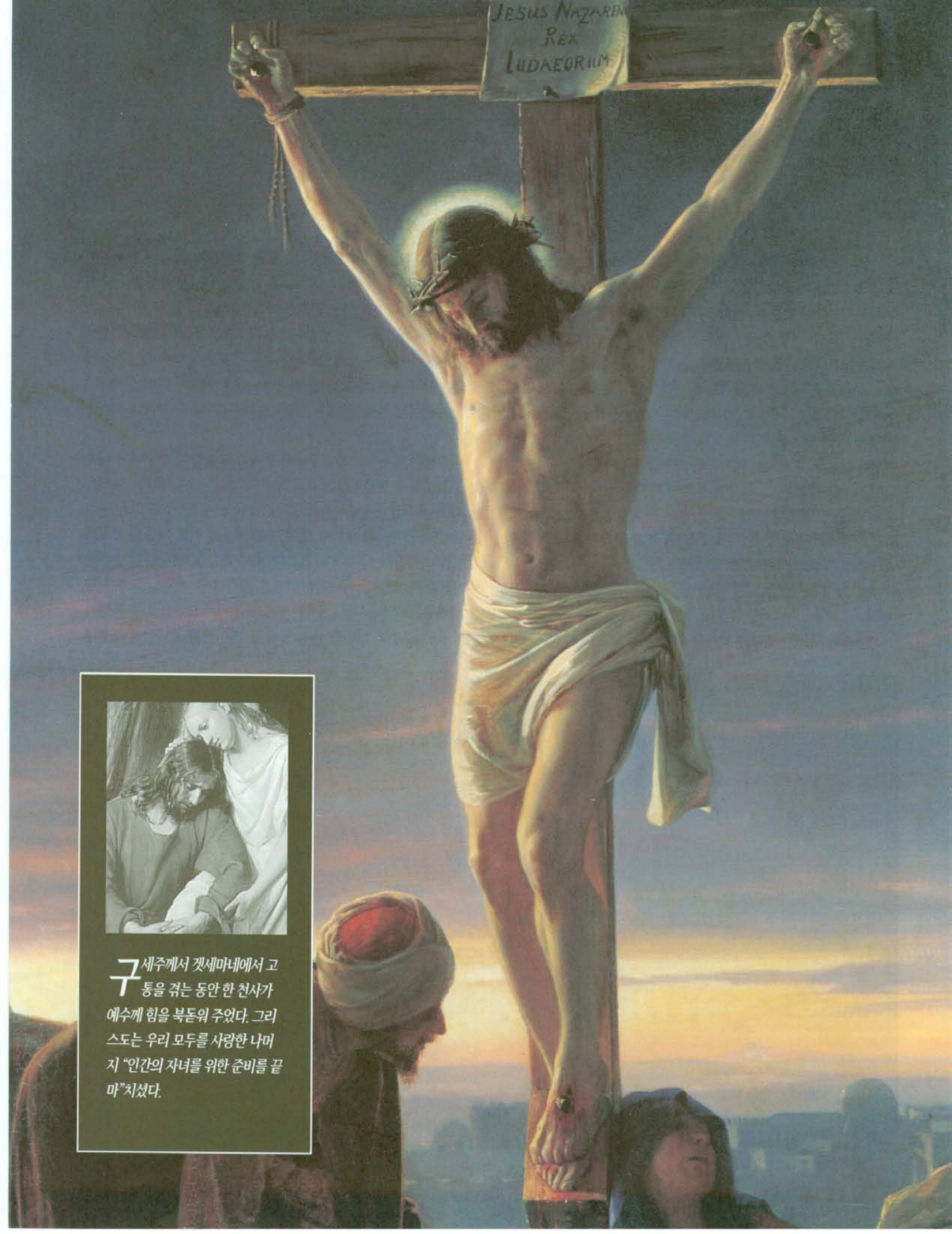
물론경은 예수님의 속죄를 “무한한 대속”(앨마서 34:12)이란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한 속죄에는 무한한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버거운 짐에 눌러 겿세마네에 들어가셨을 때 “땅에 엎드리”(마가복음 14:35)셨습니다. 그분은 무릎 꿇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짧지만 진지한 기도를 드리시고 떠났습니다. 고통의 정도가 너무 커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기 시작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9:18 참조)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복돋아 드렸습니다.(누가복음 22:44 참조) 마가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심히 고민하”(마가복음 14:33~34)셨다고 표현했는데, 이 두 말은 회랍어로 각각 “소스라치게 놀란” 및 “낙담하고 낙담한”이란 뜻입니다. 이로 볼 때, 낙담에 관한 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 낙담이 무엇인지 감히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훌륭한 기도를 하시는 중에 가족간이나 쓸 만한 친근감 있는 말로 아버지께 이렇게

애원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가복음 14:36) 이 말은 연극의 대사가 아니라 참으로 절절한 상황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께 간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속죄를 겪으신 후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교리와 성약 76:107; 88:106 참조)란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죄 값을 치르려 서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흠 없는 자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



JESUS NAZARENUS
REX
IUDAEORUM



구세주께서 겻세마네에서 고통을 겪는 동안 한 천사가 예수께 힘을 북돋워 주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사랑한 나머지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치셨다.

다. 이렇듯 그분의 동정심과 자비는 정말로 완벽했고 각 개인의 필요 사항을 100퍼센트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낮아지[셔서] 만물을 아” (교리와 성약 88:6; 122:8 참조)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들이 만들었을 끈으로 많이 맞으셨는데, 그 끝에는 살을 찢도록 고안된 날카로운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긴장된 등기죽이 찢겼을 것입니다. 만일 늘상 쓰던 방법대로 39대의 매를 맞으셨다면 처음 것에 멍이 들고 나중 것에 살갓이 갈가리 찢겼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예수님이 중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출혈 때문에 의학상 심각한 상황에 빠지셨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계시를 통해 그분이 이전에 겻세마네에서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디에드워즈, 웨슬리 제이 게블, 플로이드 이 호스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사망,” 미국 의학 협회지, 1986년 3월 21일자, 1458쪽 참조)

예수께서 거룩한 존재가 되시는 과정 중에 겪으신 비방과 치욕

은 우리를 위해 온유한 마음으로 벌을 받으셨기에 또 다른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혜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궁홀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69:20)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 (교리와 성약 19:18)셨기에 그분은 상심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에 떨으셨으나 극심한 고독 속에서도 준비를 마치심으로써,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 (모세서 1:39)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영혼에서 나오는 큰소리로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영 대관장님의 다음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독이 전체 고통 가운데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물러나 안 계셨고, 그분의 영도 물러났으며, [예수님] 위에는 죽음의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을 줄이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권세가

인생은 우리에게 그럴 의사만 있다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하면서 그 결실을 맺도록 계획되었다.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긴 것은 아니다.

영광의 축복

그분 위에 있었다라면 마음을 줄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물러나고 장막이 그분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신을 버리지 마시라고 아버지께 간구드렸습니다.” (설교집, 3:206)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최소한 한 번은 붉은 홍포를 입고 나타나실 것인데, 이것은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음을 상키시켜 주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3:48; 이사야 63:1 참조) 그때가 되면 그분이 한때 얼마나 고독하셨던가를 알리는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 올 것입니다.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교리와 성약 133:50)

풍성한 축복의 결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과 그 무한하신 속죄와 그분의 숭고한 성품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애로운 친

절을 경배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도록 그분의 속죄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경전은 “영원토록”(교리와 성약 133:52; 이사야 63:7 참조)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회복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냐”(니파이이서 9:13)는 야곱의 가르침을 조용히 외쳐 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속죄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회복된 교리를 받기 위해 헌신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도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분에 관한 사업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놀라우신 속죄가 실재했었다는 사실에 대해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교회의 부름

“교회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다양한 직책에서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문 성직자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누구나 부름받으면 그 분야의 봉사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책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때, 기꺼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강화되고 증대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팔의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팔의 근육을 쓰면, 즉 팔의 근육을 키우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하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계에 의지해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점차 약해질 것이고 결국은 아무런 힘을 못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회든지 받아들인다면, 즉 여러분이 어떠한 부름이든지 받아들인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도움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름 받은 일은 무엇이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카페베르데 프라이아에서의 모임, 1998년 2월 22일)

가정의 밤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가정의 밤은

1915년에 주님의 예언자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정의 밤이 처음 시작되었던 때 저는 다섯 살이었는데,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저의 부친은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가정의 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하셨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밤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암전히 있지 못하고 곧잘 소리 내어 킬킬거리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가정과 손자녀들의 가정과 증손자녀들의 가정에서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가족 유대의 원리인 가정의 밤에는 이 원리가 참되다는 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 지역 대회, 1998년 3월 15일)

교회의 초석

“내가 알기로는 이 교회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네 개의 큰 기초가 있습니다. 첫번째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소년 요셉 스미스를 방문한 위대한 첫번째 시현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하늘이 열렸고, 세계사를 통한 이전

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하나님 사업들이 동시에 회복되었습니다. 첫번째 시현과 함께 하늘의 장막이 갈라진 사실은 교회의 역사성과 복지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이자 구속주에 관한 현존하는 증거인 물몬경입니다. 물몬경은 초판 때 5,000부가 발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4백만 또는 5백만 부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몬경의 위력과 영향력은 계속 증대하고 있고 물몬경의 메시지는 더욱더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앞으로 이 책에 대하여 듣고 읽고 기도할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평가되고 읽혀지고 음미될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기도와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기초는 신권 회복입니다. 이 위대한 말일의 시대에 신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사가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의 안수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어서 각종 신권의 열쇠도 이들을 비롯한 하늘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 신권의 열쇠들은 주님께 의해서 이 경륜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통치 권능이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권능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은사 중 최고의 은사입니다. 신권을 행사하고 신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신권은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 밖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축복을 베풀 것입니다.

“네 번째 기초는 주님의 집에서 베풀어지는 인봉 의식입니다. 이 인봉 의식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은 축복을 받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이 특권은 곧 죽은 자를 위한 위대한 사업입니다. 지상의 다른 어떠한 교회도 이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어떠한 교회도 이 특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인봉의 권세를 현명하게 행사할 때, 교회 회원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솔트레이크 보니빌 스테이크 대회, 1997년 11월 23일)

선교 사업의 중요성

“저는 지상의 다른 모든 교회가 지니고 있는 진리에 대해 감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포함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 신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보탬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 사업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선교 사업의 정수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의 모임, 1998년 2월 17일)

기도

“우리는 인간적 행위에서 완전을 향해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기가 매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주님의 친절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에 대해 감사를 드리십시오.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궁핍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포트하코트 지역 대회, 1998년 2월 15일)

영을 분별함

“영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과 발전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신앙과 간증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보다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경건성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암흑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혼란과 근심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마로부터 온 것입니다.” (유타 조단 지역 대회, 1997년 3월 2일) □





콘차의 새로운

일러리 휴프너

그림 : 로버트 티베렛

스페인 남부에 있는 간드라는 작은 마을은 지중해와 접해 있습니다. 이 곳은 오렌지 농원, 낚싯배, 그리고 기념품 가게 등이 있는 그림같이 멋진 곳입니다. 저는 1993년 12월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선교부로 부름 받아 왔습니다.

몇 달 후 부활절이 되자 간드 마을은 화사한 봄 기운으로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은 맑았으며, 거리는 시장을 오가면서 담소하는 여인들로 붐볐습니다. 축제의 일환으로 고적대의 행진과 퍼레이드, 그리고 작은 성당에서의 특별 미사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황혼이 지면서 오렌지꽃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동반자와 함께 간드 지부의 회원인 도리스 케슬러라는 자매님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웃으면서 “제 이웃에 살고 있는 콘차에게 물몬경을 주었는데, 그녀가 노인들을 만나고 싶어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방문하기로 한 날 우리는 콘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작고 어두웠으며, 가스 히터의 용량이 워낙 작아서 열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창문을 모두 굳게 닫아 놓고 있었습니다. 거위 목 모양의 스탠드에서 나오는 불빛이 고통으로 떨면서 누워 있



탄생

는 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콘차는 어딘가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발목뼈를 굳히기 위해 나사못을 박았는데, 또 한 번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이후 그렇게 영영 침대 신세만 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넘어진다면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합니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차는 1층에 있는 가게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용기마저 잃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콘차 페멘 마트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녀는 다른 종교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케슬러 자매가 준 몰몬경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저와 동반자는 그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복음의 빛이 그녀의 가슴과 어두웠던 작은 아파트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콘차는 경전을 공부했고 겸손하면서도 열렬히 기도했으며, 진리에 진리를 거듭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차로 교회까지 데려오기 위해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회원 한 명이 그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는 성전에 가기 위한

여비를 작은 플라스틱통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의 침례가 있기 바로 전 안식일에 그녀를 데려오기로 했던 사람이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그녀를 데리러 가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차가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았으나 그녀의 집으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콘차가 땀을 목발을 짚고 주차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뛰어가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음의 축복을 꼭 받고 싶었어요. 그 어떤 것도 절 막을 순 없죠.”

그날 그녀만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간증하면서 콘차의 개종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쳤습니다.

침례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후 콘차는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지지 받았습니 다. 그녀는 성전으로 가기 위한 여비를 계속 모으는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저는 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새로운 시작 등을 생각할 때마다 간증의 밝은 빛을 내며 서 있던 콘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후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거듭남의 신성한 상징인 침례를 받고 물에서 기쁘게 나오던 그 날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



질의 응답

제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찬을 합당치 않게 취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합당하게 취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끔 합당치 않다고 느낄 때에도 확신이 없어서, 또는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냥 성찬을 취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답

매 주 성찬식 때 우리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성약을 새롭게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성찬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속죄의 상징물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은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평화의 느낌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약속한 바를 매주 기억하게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한 주 동안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행동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거나 하고 있어야 할 일을 지나쳤다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찬은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만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기회도 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

리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방 구세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발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나은 제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한 우리는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특히 회개하고자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찬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만약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빵과 물이 전달될 때 성찬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찬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득보다는 해가 됩니다. (니파이삼서 18:29 참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눈을 의식해서 성찬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잘못된 선택들을 숨기기 위해 성찬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괴롭히는 불편한 느낌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범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

걸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각한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찬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의 상징물들을 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심각한 죄들을 감독님이나 지부장님과 함께 해결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피해자와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으로 크게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로나이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그리스도의 성찬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범사를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며 끝까지 견디면 결코 쫓겨 나지 아니하리라." (몰몬서 9:29)

이러한 원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서로에 대해 속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성찬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주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사실 귀

하의 질의에 나타나 있듯이 성찬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취해야 하고 언제 취하지 말아야 할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범법을 회개하고자 성찬을 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찬을 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말일 성도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들의 대답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걱정하기 전에 미미한 잘못에도 슬퍼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애나 존스

영국 크롤리 스테이크

엡슨 와드

최근에 저는 '나의 발전 기록부'의 성찬에 관한 부분을 실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을 토대로 조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28절까지 읽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성찬을 배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회개하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벌리 브로드릭

매릴랜드 주 볼티모어 스테이크
에지우드 와드

누구나 양심은 있습니다. 만약 기도한 후에 자신이 합당치 않다고 느껴진다면 성찬을 취하지 말고 감동님과 접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의 조언에 따름으로써 우리는 다시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니에카치 이 오니엔크웨레

나이지리아 아바 스테이크

옥푸 우무오보 로드 와드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주님과 맺은 성약을 다시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쿠엘 이그나시오

필리핀 바구이오 스테이크

바구이오 대학 와드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즐겁게 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찬을 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주님의 영을 지닐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앤 오니에위치 이나마호

나이지리아 오웨리 스테이크

아무마라 와드

제 부모님은 항상 제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다이애나 존스



김벌리 브로드릭



오니에카치 이 오니엔크웨레



라쿠엘 이그나시오



엔 오니에위치 이나마흐



아드리아네 히토미 히라타



호 자네스



로세 오 비카톨리아 키니키니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느껴질 때 저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사실을 되새깁니다. 저는 성찬식 때 조용하게 찬송가를 부른다거나 경전을 읽거나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아드리아네 히토미 히라타
브라질 이파팅가 지방부
카나아 지부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과 싸움으로써 경건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집행되는 엄숙한 순간에는 구세주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성찬을 취한 다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후 구세주와 성찬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호 자네스
브라질 빌헤나 지방부
지-파라나 지부

가끔 우리는 왜 성찬을 취하는지를 잊고 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영원하고도 위대한 희생을 치르셨으며, 우리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맺은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만약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성찬을 합당치 않게 취하려는 마음이 들 때는 다음 구절을 생각하

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로세 오 비카톨리아 키니키니
통가 하 아파이 스테이크
우이하 와드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9년 6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Floor 25,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CUR-
Liahona-IMag@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응답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 가운데서만 채택합니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응답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신도록 하겠합니다.

질문: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 한 명이 술을 마시고 학교에 무단 결석하곤 하기 때문에 그 친구와 사귀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친구도 돕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을까요? □

가족에게 의로운 원리를 가르침

현재의 사회적, 도덕적 상태를 보면 사회의 중요한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심각할 정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도 가정 안에서 여러 의로운 습관을 키우라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른다면, 가정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라도 변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인격을 형성함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2:6)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이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어린이의 성격은 어릴 때 매우 적은 노력을 기울여 지도함으로써 키울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훈련은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국가를 돕는 네 가지 단순한 일들”,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6쪽)

모범으로 가르침

의로운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의 부친은 인쇄업자로서, 평생 동안 매일같이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분도 안식일에는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는 것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연로한 친척을 방문하여 그 분들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한 분은 아버지의 삼촌이신 데 심한 관

절염으로 다리를 절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일요일 오후 같은 때에 아버지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토미야, 이리 온. 큰할아버지께 차 좀 태워 드리자.’ 1928년형 낡은 올즈모빌 승용차를 타고 우리는 큰할아버지가 사시는 웨스트 8가로 갔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큰할아버지 맥으로 들어가는 동안 승용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절뚝거리는 사기 인형 같은 큰할아버지를 안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나는 차문을 열어 놓고 아버지가 매우 정중하고 애정에 찬 마음으로 큰할아버지를 앞자리에 태워 잘 보이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차를 태워 드린 시간도 짧았고 대화도 별로 없었지만,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사랑의 유산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 주시지 않았지만 나와 큰할아버지를 1928년형 낡은 올즈모빌 승용차에 태우고 거리를 달려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표시”,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76~77쪽)

의로운 습관을 키움

가정에서 의로운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1)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선을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2)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일을 하십시오. (3)부모와 자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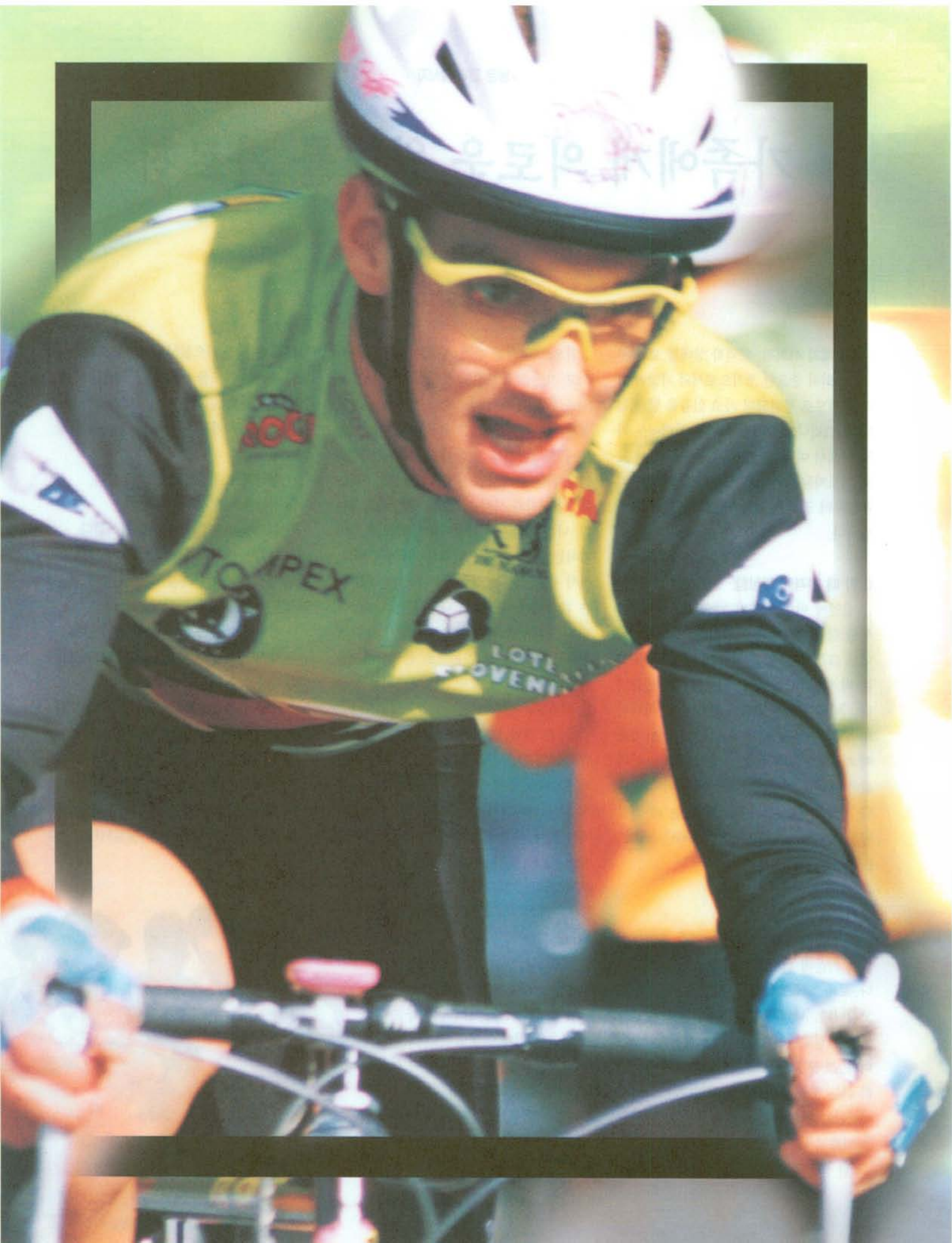
함께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4)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기도를 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7쪽)

이 밖에 몇 가지 방법들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는다.
- 정기적으로 경전을 읽는다.
- 일요일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
-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예언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의로운 목표를 가족과 함께 세운다.
- 건전한 가족 오락 활동에 참여한다.
- 함께 일하면서 복음 원리에 대해 토론한다.
- 좋은 음악을 감상하거나 가족 역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갖는다.

이와 같은 가족 전통을 세우면,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에베소서 6:4)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는 아직도 사이클 선수이지만

재닛 피터슨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나에 거주하는 레온 바겐트는 열한 살 때부터 사이클 경기에 참가했다. 그는 사이클 경기에 참가한 때부터 우승을 했다. 끊임없이 유럽 사이클 경주에서 그가 획득한 트로피는 무려 100개가 넘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레온은 프로 사이클 선수가 되었고 그후 지금까지 슬로베니아 국가 대표팀 선수로 있다. 그는 "매일같이 160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맹훈련했다."고 말한다. 그의 강훈련은 주효했다. 그래서 23세 이하 그룹의 슬로베니아 국가 대표팀 우승 선수가 되었다. 그는 1997년 11월에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도 참가했다. 언젠가는 투르-드-프랑스 대회에도 참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레온의 인생 행로와 프로 생활은 1995년 12월에 류블리아나에서 있었던 연례 크리스마스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일대 변화를 맞았다. 거기서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 전시장을 본 것이다. 두 명의 젊은 선교사 슈 클로슨 장로와 크레이그 틴지 장로가 선교 전시장 옆에 서서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해 주고 있었다. 레온은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흥미를 느꼈다.

레온의 가족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참된 교회를 찾아 왔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



레온 바겐트는 지금 화려한 슬로베니아 국가 대표팀 제복을 입지 않고 선교사 복장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이클 경기를 위해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계시고 참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니셨던 교회에 참석했었지만, 거기서는 저의 의문을 해소시켜 줄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참된 교회로서의 원리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며 참된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간증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선교사를 만나면서 저의 의문점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며 사랑이며 순결의 법과 같은 복음 원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씀에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복음 원리는 그때까지 제가 추구했던 말씀이었으니까요. 선교사들이 저에게 전한 말씀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저의 영혼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선교사를 만난 지 2주 후인 1996년 1월 5일, 레온은 침례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았다. 레온은 이렇게 회상한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복음에 대해 매우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고 그 간증은 날로 커져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훌륭한 모범이었고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레온은 정말 선교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가 침례받은 것과 선교 사업에 나가고 싶어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레온은 이렇게 회상한다. “저의 가족은 우리 교회를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레온은 처음 사이클 경기에 참가할 때부터 승용차를 살 돈을 저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때까지 저축한 돈을 전부 갖고 있었죠. 그 돈은 원래 차를 사려고 모은 것이었지만 그후 그 돈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저축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성기에 2년이나 쉬다는 것은 그의 프로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팀 동료들이 들으면 크게 충격 받으리라고 생각하여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한 것을 알리기가 두려웠다.

그뿐 아니었다. 슬로베니아에는 모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온은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군 입대 후 레온에게는 선교 사업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범도 보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 회원이 된 이후로 저는 아침과 저녁 취침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했을 때에는 30명을 수용하는 막사에서 취침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어떻든 기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아래층 침상을 사용하는 동료에게 그의 침대를 빌릴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래. 그런데 왜 그러지?’ 하고 물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그는 ‘좋

아. 괜찮아.’ 하고 말하고는 자기 침상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몹시 시끄럽던 실내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매일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저는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동료들에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통 사람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무슨 책을 읽고 있니?’ 라고 물으면서 말을 건네 왔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레온은 복음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 그는 교회가 조직된 지 얼마 안 된 슬로베니아에서 세 번째 슬로베니아 출신 선교사가 되었다. 선교사들이 슬로베니아에서 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이다. 슬로베니아는 오스트리아 빈 남 선교부에 속한다.

레온 버겐트는 1997년 10월에 크로아티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크로아티아도 역시 오스트리아 빈 남 선교부에 속한다. 그는 1998년 1월 17일에 영국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였다.

레온은 지금도 여전히 사이클 선수이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슬로베니아 국가 대표팀 선수복 대신 넥타이를 맨 하얀 와이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다. 목적도 예전과는 다르다. 자신의 사이클 경기를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반짝반짝 빛나는 트로피를 모으는 대신 영원한 보화-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강한 간증과 그 자신이 추구하여 왔던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소중한 경험의 추억들을 갖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



레온은 열한 살에 사이클 경기에 참가한 때부터 100개가 넘는 트로피를 수상했다. 그는 장차 3주간 4,800킬로미터 구간을 달리는 투르-드-프랑스 대회에 참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한 마음으로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느 쪽이 무거운 짐인가?

쉴트 솔트라

그림 : 데이비드 더블류 마이클



이제 헝가리어 판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가 번역되어 한 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헝가리의 회원들은 세 권의 경전을 공부하고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그 세 권은 성경, 물문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로서 가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들이 가방을 무겁게 할지라도 제가 삶에 적용하게 되는 이 경전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경전들은 삶의 짐을 가볍게 해 줍니다. 구세주께서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30)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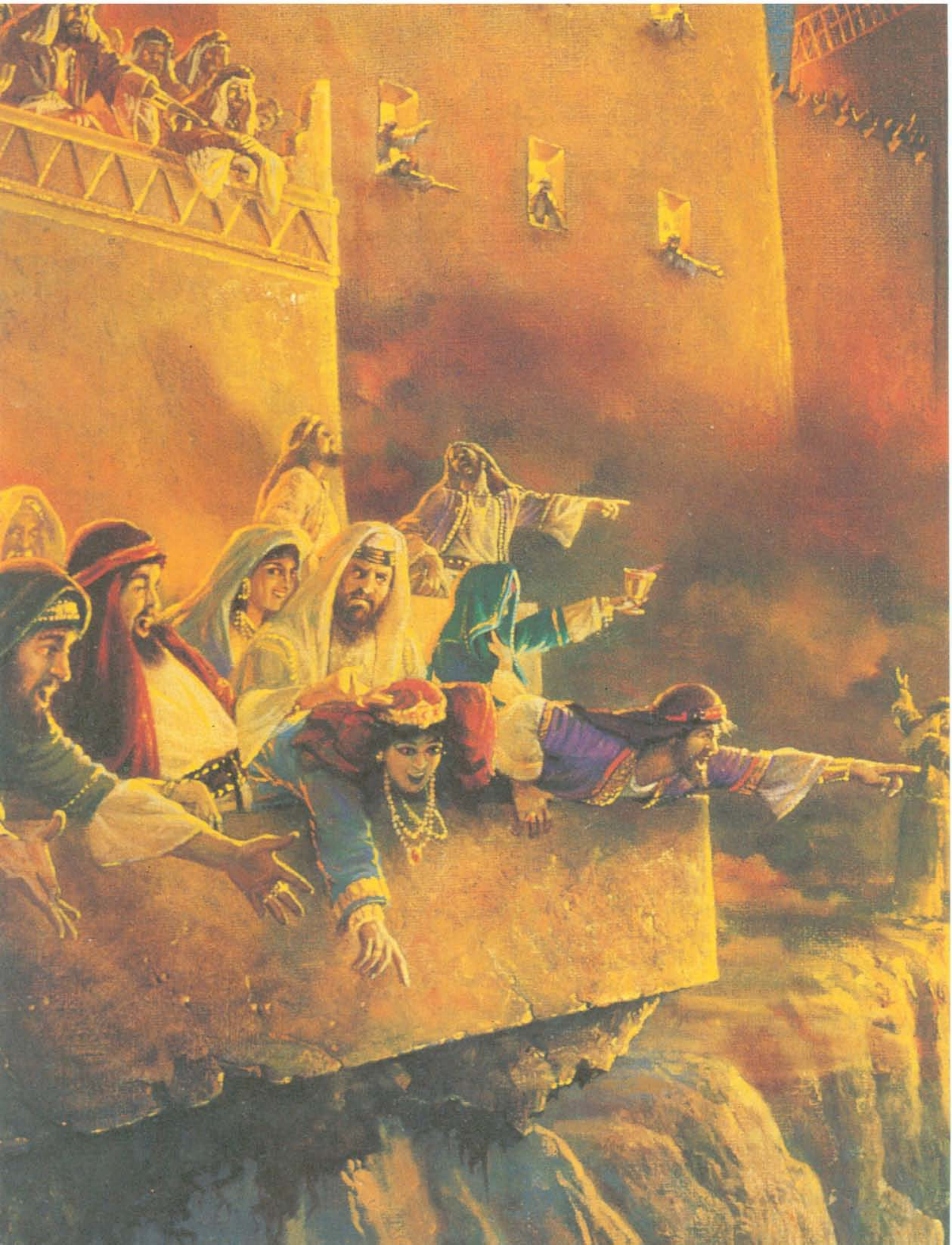
반면에 육체적으로는 가볍게 느껴지는 것들이 영적인 짐을 매우 무겁게 지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적은 양의 커피, 홍차, 술, 담배, 중독성 약물 등의 무게는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취했을 때 제 몸과 영에 미치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8~29)

우리는 매일같이 짐을 선택합니다. 경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벼운 짐과 죄와 세상적인 영향력이라는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막강한 명성과 부를 지닌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믿을만한 안내자가 되지 못합니다.

엘 알튼 포터 장로

여러분은 지역 사회, 국가 혹은 동일 문화권에서 명성과 부와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할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에 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49년 10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은 “지식인보다는 고결한 인격자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주일학교는 앞을 내다 봅시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9년 12월호, 863쪽)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운동이나 음악 또는 연기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는 고결한 인격자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분야와 그 밖의 다른 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갖는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덕성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진 명예의 전당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테비아가 매우 훌륭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그가 부른 “만일 내가 부자라면”이라는 주제곡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조언을 구할 정도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

리하이는 생명 나무의 시현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크고 넓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열매를 따 먹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였으나,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였노라.”

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조언이 옳으나 그르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부자나 유명 인사가 말이나 글, 노래 같은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모두 다 참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먼인 사무엘은 니파이인들에게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좇으며 눈먼 길잡이에게 이끌려 다니려 하느냐?”(힐라맨서 13:29)라고 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길잡이에게 이끌려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됩니다.

주님은 현세에서 우리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운 길잡이를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살아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자들의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는 우리의 노력을 조롱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 개의치 않음

세상 사람들의 반대에 맞서 우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하이의 꿈의 일부분을 살펴보는 동안 세상의 조롱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강물 건너편에 크고 넓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땅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니라.

“그 건물 안에는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꽉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값진 것이었더라. 저들은 마치 강 이편에 이르러 열매를 따 먹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형상이더라...”

“또한 이상한 건물로 들어간 무리가 심히 많았으니 저들이 그 건물로 들어간 후에 나와 열매를 따 먹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



하였으나,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였노라.”(니파이일서 8:26~27, 33)

해답은 바로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짙막한 한마디이지만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고 아주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였노라”입니다. 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거룩한 숲에서 겪은 사실을 말했을 때, 루시퍼는 그에 대한 방어로 조롱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년 예언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징죄 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

니다.”(요셉 스미스서 2:25)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소년 예언자는 고통을 받았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언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개의치 아니하였” 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사업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격받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조롱이 닥칠 때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모로나이 자신도 바로 이 병적인 인간의 약점을 우려하여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또한 우리들의 말을 크고 힘있게 하시어 감히 모두 기록하지 못하게 하시었으니, 우리가 기록한 때에 그 연약함을 아오며, 말을 어찌 써야 할까로 어려움을 당하는지라 혹 이방인들이 우리의 언어를 조롱하지나 않을지 두렵사옵니다.

“내가 이같이 고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이 조롱할 것이나, 저희가 애통해 하리로다. 나의 사랑이 온유한 자들에게는 흡족할 것이요 저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닷하지 아니 하리로다.”(이더서 12:25~26)

삼입 그림: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배경: 잭슨 군에서 성도들이 당한 박해에 대하여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최악의 시련을 겪을 때보다 전능하신 분의 권세와 평안을 더욱 풍성하게 느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림: 벨 파는 첫번째 시현 : 배경 그림: 시 시 에이 크리스텐슨: 폭도들이 1838년 정착지인 미주리 주 잭슨 군을 공격하였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잭슨 군에서 성도들이 당한 박해에 대하여

악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다른 무기가 없을 때에는 조롱을 퍼붓습니다. 한편으로 의인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달리거나, 높이 뛰고,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권세나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 달아나 숨어 버리고 맙니다. 당면 주제와 그러한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인물

이제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물리치고 자신의 덕성을 곳곳이 지켰을 때 그 보상은 무엇이나고 묻고 싶습니다. 그 보상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힐라맨의 아들이자 리하이의 형제인 니파이가 왕국 건설을 생각하며 "꿀꿀히 헤아리고 있을 때,"(힐라맨서 10:3)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어, 네가 행한 일로 하여 네가 복이 있으리다. 너는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이 백성들에게 성심으로 외쳐 전하였음이라. 너는 또한 저들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너의 생명도 돌보려 하지 않고 다만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려 하였도다.

"네가 이토록 성실히 행하였으매, 보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축복하며, 언행과 신앙과 역사함에 있어 네게 권세를 주어, 정녕 내가 내 뜻에 거스르는 바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매 무엇이건 네가 말하

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힐라맨서 10:4~5)

이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도 주님과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니파이와 같은 헌신과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니파이에게 주어졌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명예의 전당에 모시기에 충분한 영예 인물 목록에 하나님의 예언자들, 특히 살아 있는 예언자들을 포함시키십시오.

예언자들께서 어떤 주제로 말씀하시든지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여 온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 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현세에서 그분들이 행한 일들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언자들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부름이 더하여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합당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들의 일치된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결코 그릇된 길로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닐까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예언자들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고만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 해 전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저 스스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고민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찌 되든 관심이 없다. 앞으로 수개월, 수주일, 또는 며칠,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이런 불행한 경험을 기억할 사람은 단지 너 한 사람뿐이야. 그 뿐 아니라, 네가 존경하는 인물들도 너에게 경멸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

그 일은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덕성을 지키는 일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것도 조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세력이 실존하며, 우리는 동시에 양쪽 진영에 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덕성을 지키는 한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를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막강한 명성과 부를 지닌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은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존재하시며 구세주께서 살아 계신다는 개인적인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경전 공부를 계속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에 임할 것이며 확신과 신뢰감과 평안의 느낌으로 임할 것입니다.

희생의 날은 끝났는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때, 우리는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브리감 영대관장의 다음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들 성도들과 함께 시련과 박해와 추방을 경험하지 않고 단지 글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한 여러분은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그 고통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 남았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또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실망하고 골치 아파하고 몸이 떨리기도 할 것입니다. 또

나 같으면 견뎌 낼 수 없었을 거야” 하고 곧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박해 중에서도 최악의 부분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생을 통하여 최악의 시련 중에서보다 더 잘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전능하신 분의 권세와 평안을 그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느껴 본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시련 따위는 사소한 일로 느껴졌습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8월 24일, 83쪽)

그러면 희생의 날은 끝났습니까? 물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헌신적으로 기르는 어머니들은 희생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압니다.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들도 역시 희생을 어느 정도 압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역시 희생을 어느 정도 압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가 순교한 지 12일이 지난 후, 피습 당시 카테지 감옥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윌라드 리차드와 존 테일러는 영국 선교부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살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스런 시기-사계절이 바뀌어 땅이 새롭게 되고, 소요와 싸움과 살육이 없어지고, 짐을 보습으로 만들고, 평화와 진리가 여호와의 온 발등상을 뒤덮는 영광스런 시기가 도래함을 예고하시는 가장 의미 심장한 날이 동트는 때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구름이 온 땅에 드리워져 있지만 이 영광스런 날은 바야흐로 밝아 오고 있습니다.”(교회 정사, 7:172)

우리의 가치관이 종종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의 명예의 전당 입구에 경비를 똑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하고 본받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인물이 아니면 누구도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명예의 지위를 부여하실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 다음의 지위는 예언자들, 특히 요셉 스미스와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부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배우십시오. 이 행복의 계획을 생활화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개의치 마시고 행복의 계획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전능하신 분의 권세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쏟아짐을 느낄 것입니다. □

그들의 얼굴이 해답이었습니다



레베카 크리스티



딸이 태어난 직후, 제 남편은 일 때문에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와 다섯 명의 어린 아들, 그리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지각하기 일쑤였고, 가끔은 성찬식이 끝나고 초등학교와 주일학교가 시작될 때쯤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어서 보채는 아기를 안고 복도를 서성이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교회에도 거의 형식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도대체 왜 가는 거지?' 하고 자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얻은 것이라고는 두통과 근육 결림뿐이었습니다.

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게 옳다는 건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제게 왜 중요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부활 주일이 왔을 때, 저는 모임 중에 제 아기를 안고 집회소의

복도를 거닐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와야만 합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제게 왜 중요합니까?'

저는 우연히 초등학교 교실을 지나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얼굴에 나타난 경건과 경의의 표정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은 비록 많은 것을 얻고 있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부활 주일날 아침에 본 어린이들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우크라이나 체르니코프에서의 교회의 시작

마빈 케이 가드너

사진 촬영: 리차드 엠 블...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
리와 성약 64:33)**

니콜라이 사베코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니
코프에 있는 집에서 폴란드로 갈 때만 해도
그저 일상적인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언제
나처럼 노천 시장에 내다 팔 어린이 장난감
을 사러 국경을 넘어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였다.

1995년의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 포
단란한 사베코 가족: 니콜라이, 올리아, 안야와
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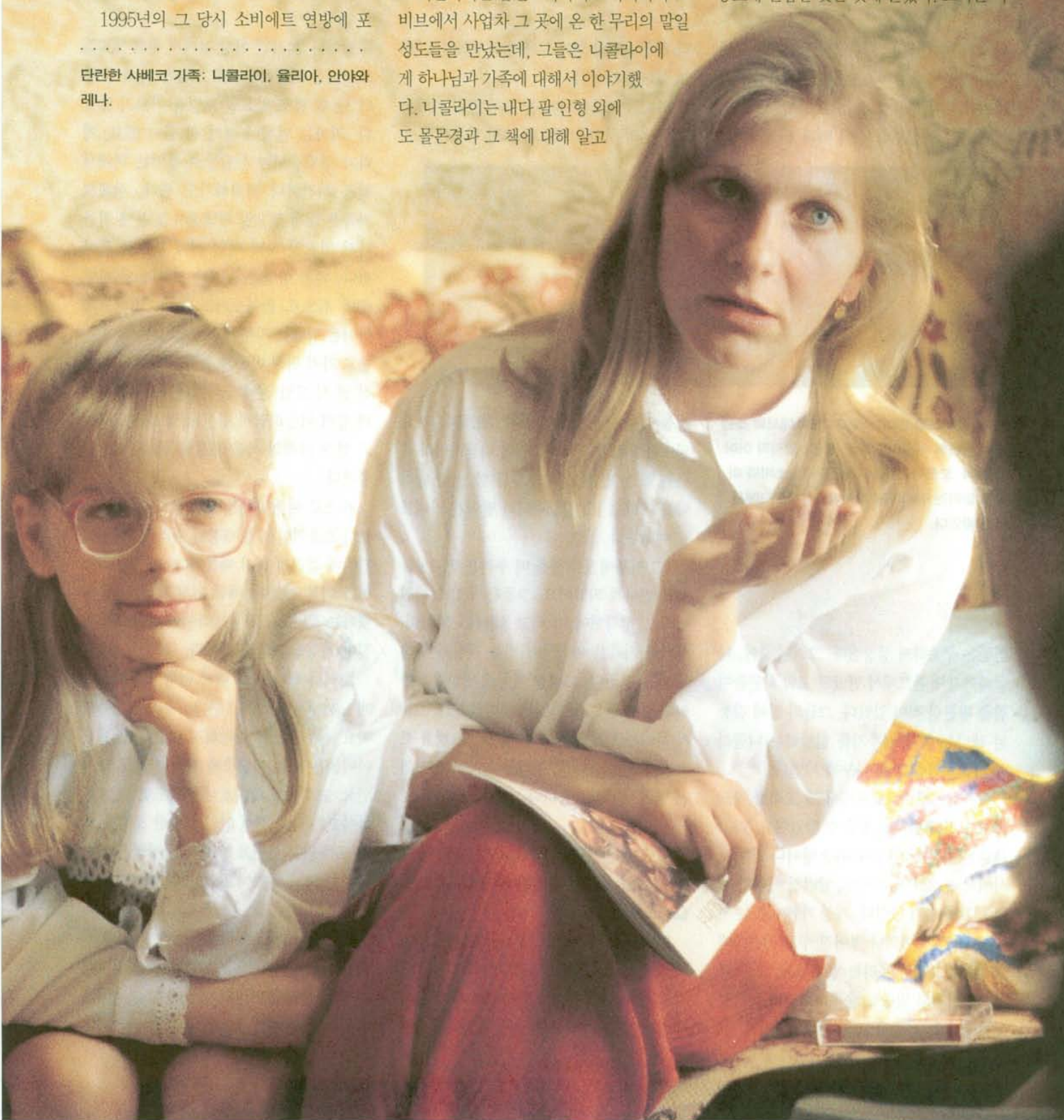
함되어 있었던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변화
가 일어나고 있었다. “너무도 힘들었던 시
기입니다.”라고 니콜라이는 말한다. 그는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 아
니라 난생 처음으로 종교적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그는 진리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있
었다.

니콜라이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의 르
비브에서 사업차 그곳에 온 한 무리의 말일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니콜라이에
게 하나님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
다. 니콜라이는 내다 팔 인형 외에
도 몰몬경과 그 책에 대해 알고

자 하는 강한 열망까지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서 돌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예
레미야 31:14)**

니콜라이의 아내 레나는 남편이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이



렇게 말한다.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우리 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요.”

물론경을 공부해 감에 따라 니콜라이의



왼쪽: 율리아와 안아는 체르니코프에서의 첫 번째 초등협회 어린이들이다. 중앙: 알라의 어머니 니 베라. 오른쪽 맨 끝: 알라 쿠르노소바와 아들 비탈리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침례 받았다.

신앙은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던 중에, 니콜라이가 폴란드에서 만났던 교회 회원들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영에 감동된 레나는 좀더 배우기를 갈망하는 니콜라이의 굶주림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우리는 체르니코프에서 그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해 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라고 레나는 말한다. 인구가 35만 명이나 되는 도시에서 선교사도, 지부도, 알려진 어떠한 회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지부는 150킬로미터나 떨어진 수도 키예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던 모든 계명, 곧 지체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이 더욱 가까워졌어요. 보

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성약을 맺으며 교회 회원들과 우

정을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일요일이던 1996년 11월 24일에 니콜라이와 레나는 열 살 난 딸 안아와 일곱 살 난 딸 율리아를 데리고 150킬로미터나 떨어진 키예프로 여행했다.

“그 지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선교사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회원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레나는 말한다. 샤베코 가족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환대에 매우 놀랐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원래 별로 웃지 않는 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느꼈던 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교리와 성약 64:33)

샤베코 가족은 그 이후로 체르니코프에서 키예프까지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여행을 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기차의 난방은 형편없었지만

주말마다 24시간 이상 걸려서 왕복 300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도 그들은 여러 달 동안 단 한 번도 일요일 모임을 거르지 않았다. 기차는 언제나 여러 번 멈춰 섰고, 게다가 한밤중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역에서 일곱 시간이나 연착하기도 했다. 샤베코 가족은 대개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집을 나서 일요일 저녁 여덟 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때론 한밤중에 떠나 그 다음날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키예프에 들어온 뒤에는 지부가 모임을 갖는 임대 건물로 가기 위해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고 오전 열 시 모임 전에 도착했다. 그후 회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점심도 먹고 선교사들과 한두 차례의 복음 토론을 한 뒤 집으로 향했다.

버스로 여행했다면 훨씬 빨랐을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시간 배정에 따라 편도 세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가 너무 비쌌다. 매달 기차로 네 차례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니콜라이는 한달 수입의 절반 가량을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레나는 그 때의 여행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아이들조차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들은 때로 여행중에 잠을 자기도 했지만요. 교회에서 리아호나를 받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객실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모두 읽곤 했어요. 여행의 불편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선교사인 켄트 에버렛 장로와 데릭 로우 장로는 윌프레드 엠 보그 선교부장의 허락을 받아 샤베코 가족의 집에서 그 가족에게 복음 토론을 가르치고자 몇 차례 체르니코

프를 방문했다. 집의 난방이 잘되지 않아, 선교사들과 가족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했다.

“하지만 복음 토론 중에 주님의 영이 함

“성실한 자의 기도는 들릴 것이므로”(니파 이이사 26:15)

침례받던 날 사베코 가족은 키예프의 한 회원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탈리는 가정 복음 교사로 부름을 받고 교대로 두 가족을 가르쳤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

1997년 6월 1일 일요일에 니콜라이와 레나의 집에서 가진 모임은 언제나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 모임에 열두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사람은 니콜라이와 레나, 안야, 율리아, 알라, 비탈리, 비회원이며 알라의 어머니인 베라, 열아홉 살이며 체르니코프에서 법과 대학에 다니는 키예프 출신의 교회 회원 카차 말리히나와 이들을 가르치는 네 명의 선교사 윌리엄 장로, 마넷 무리 자매, 데이비드 실스 장로와 크리스 콜튼 장로가 그들이다.

실스 장로가 모임에서 사회하고 무리 자매가 피아노를 연주한다.(그녀는 안야와 율리아에게 피아노를 배워서 찬송가 몇 곡을 질 수 있게 해보라고 격려해 왔다. 모임 전 후에 그 청년들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개회 찬송으로 “늘 함께 합소서”를 부르고 비탈리가 개회 기도를 했으며, 성찬 찬송으로는 “구유에서 나신 예수”를 불렀다. 니콜라이와 콜튼 장로가 하얀 보로 덮인 작은 테이블 위에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 기도를 드리고 비탈리가 빵과 물을 돌렸다. 그런 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구세주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말씀을 나누었다.

레나는 자신의 집에서 교회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울먹인다. “여기에 모두 모였지만 수는



깨하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라고 로우 장로는 말한다.

그들이 지부를 처음 방문한 지 6주가 되던 1997년 1월 5일에 니콜라이, 레나, 안야, 그리고 그 해에 여덟 살이 된 율리아까지 온 가족이 침례 받았다.

몇 달이 지난 후 레나는 임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일마다 키예프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부장은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한 달에 두 번씩 니콜라이와 딸들은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키예프로 여행했다. 그리고 다른 일요일에는 선교사들이 사베코 가족의 집으로 직접 찾아와 함께 교회 모임을 가졌다. 말씀과 공과는 경전과 교회 교재와 리아호나를 통해 주어졌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박해도 찾아왔다. “어떤 이웃들은 ‘러시아 정교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단 말인가요?’ 하고 따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는 더 이상 저희와 가깝게 지내지 않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라고 레나는 말한다.

3년 전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알라 쿠르노소바라고 하는 미혼모와 비탈리라고 하는 그녀의 어린 아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가입한 뒤 체르니코프로 돌아와 살고 있으며 알라는 재봉사로 일하고 있다고 전해 준 것이다.

알라 쿠르노소바는 침례 받은 후 3년 동안 자신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게 된 선교사들과 서신 왕래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편지를 통해 그들은 제게 희망과 힘을 주었어요.”라고 알라는 말한다. 그녀와 열세 살 된 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공부했다. “비탈리가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어한테 항상 배우죠.”라고 알라는 말한다. 그들은 체르니코프에도 교회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마침내 그들의 기도와 인내가 응답되었다. 알라와 비탈리는 사베코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두 가족은 선교사와 한 달에 두 번 갖는 일요일 모임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가졌다. 니콜라이와 비

몇 명 되지 않죠. 이 아파트에 딱 맞는 수예요. 다른 곳에는 교회 회원들 수가 더 많겠죠. 모든 사람이 항상 자신의 간증을 전할 기회는 갖지 못할 거예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레나는 주중에 한 자매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과 함께 복음을 나눠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개신교의 회원인 그녀는 레나에게 말일성도 교회를 시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려 주어 복잡한 과정이 쉽게 여겨졌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분이 좋

았습니다. 비록 종교가 다르지만, 우리는 훌륭한 친구가 되었고, 신앙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 주시며 체르니코프에서 교회가 성장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레나는 말한다.

니콜라이는 이렇게 감사함을 전한다. “간증을 자유롭게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후 그는 지혜의 말씀에 대

해 이렇게 간증한다. “지혜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육신을 지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자주 술에 취해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증을 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삶을 예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를



감쌌던 그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진리와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열아홉 살의 법학생인 카차 말리히나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제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 안야 사베코는 이렇게 간증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참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어요. 저는 이곳에 빨리 지부가 세워져 사람들이 보다 빨리 복음을 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라 쿠르노소바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구세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또한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일요일 모임이 끝난 후에 저는 사촌에게 저의 교회에 대해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관심을 보이면서 다음 모임에 저를 따라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회원인 알라의 어머니는 이렇



게 말한다. “제가 이 곳 체르니코프에서 교회에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여러 번 참석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곳에서 예전에 그 지부에 갔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마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올 생각입니다.”

폐회 찬송으로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을 부른 뒤 여덟 살 난 율리아가 폐회 기도를 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간증은 하늘에 기록되어 천사들이 볼 것임이라. 천사들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교리와 성약 62:3)

1997년의 그 안식일 이후, 체르니코프에서의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니콜라이와 레나에게는 여자 아기가 태어났다. 이름은 ‘라라’라고 지었다. 알라의 어머니인 베라가 침례를 받았다. 이제 열네 살이 된 비탈리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교회가 체르니코프에서 공식적으

로 등록되었고,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니콜라이가 초대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현재 복음 선교사들이 체르니코프에서 살면서 봉사하고 있다. 여러 명이 침례를 받았다. 지

왼쪽 맨 끝부터: 사베코 가족의 집에서 간증 모임을 가짐. 레나와 그녀의 두 딸과 카차 말리히나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그후 모든 사람들이 사베코 집 뜰에 나가 모였다. 친구들과 선교사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빗속을 걸어가고 있다.

부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작은 건물을 빌려 모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지부 회원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돌보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눈다.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는 주님의 영이 밝게 타오르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1998년 8월에 대관장단이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한 점이다. 곧 체르니코프 회원들은 키예프로 여행하여 주님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늙은 들을 살펴보되 개간은 작은 곳만 하십시오.” 이것은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 시각이 국지적인 데 머물기보다는 광범위해질 때 더 나은 가정 복음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있었다면 세상은 한결 나은 곳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것처럼 광범위한 시각이 정말 그렇게 유용하다면 영원한 관점이야 얼마나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주님의 소망이 관철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신앙은 높이 향상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성약 또한 확고하게 자리 잡

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교리와 성약 1:20)라는 소망을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의 여러 곳을 탐방하면서 가정과 가까이 사는 이웃 사람들에 대해 훨씬 더 소중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가정 복음 교육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권고를 해준 가정 복음 교사가 있어서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긴 세월을 살면서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육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 잘 숙지한 가정 복음 교사들을 만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



목자, 양, 그리고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정복음교사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혹독한 시련과 시험이 교회 회원들 위에 임할 때-사랑이 많은 가정 복음 교사들의 자상한 보살핌이 문자 그대로 영적인 생명체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복음 교사들은

- 사전에 약속한 시간을 충실히 잘 지켰고
- 부모인 우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당장 꼭 필요한 것에 관해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해 왔으며
-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방문을 짧게 했고
- 기도로써 주님의 영이 우리 가족 위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좀더 넓은 관점으로 돌아와서 말씀 드리자면, 오늘날 세상의 여러 종파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타 집단들은 "자기 완성", "자기 실현", "자기 성취", 혹은 "자기 인식" 등과 같은 관념에 주의를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어들을 대하면서 오히려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이 무시되거나 망각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 교리와 성약 59:6 참조)

이 두 가지 큰 계명은 완전한 조화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첫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사서 2:17)

사심 없는 봉사에 대한 상급에 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5; 마태복음 10:39 참조)

지금부터 오래 전에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한 영속적인 표준이 마련되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이 원리는 예수께서 세우셨는데, 그분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주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목자들도 끼여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8~18 참조)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시편 23:1 참조) 주님은 가르침 중에 그와 같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

도 나를 아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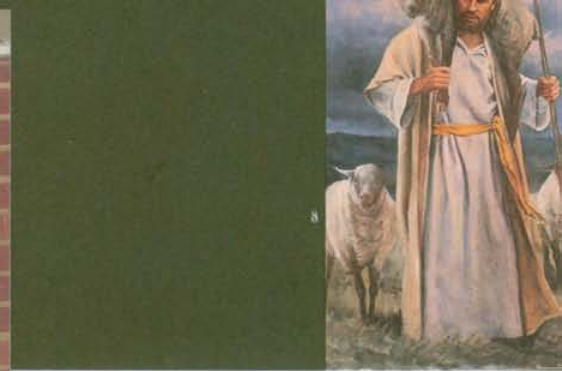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14~15; 요한복음 10:11, 27; 교리와 성약 50:44 참조)

그 선한 목자께서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시면서 중요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feed my sheep)"(요한복음 21:15)

희랍어로 된 신약전서가 있는 이상 우리는 위에서 말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의 희랍어 의미에 대해 좀더 깊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먹이다' 즉 'feed' 라는 단어는 희랍어의 bosko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기르다 또는 가축에게 풀을 뜯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양' 즉 'sheep' 이라는 단어는 'arnion' 의 작은 말로서, "어린 양"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

신약음용성



■ 어린 양은 자라기 위해 영양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 양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 양은 길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의 가시적인 표시는 질서 정연한 체제를 정립해서 그에 따라 각각의 소중한 회원에게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보살핌과 영양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분의 양떼를 각각 그렇게 보살피라고 명하셨습니다. 신권에 의한 가정 복음 교육도 그러한 체제 안에 포함됩니다. 구세주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누가복음 15:4)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영감을 받아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목자는 아흔 아홉마리를 떠나 잃어버린 한마리를 찾으러 들로 갈 것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요셉 스미스역, 누가복음 15:4 참조)

그가 정상적인 환경을 떠나 [양을] 구하기 위해 들로 간다는 의미가 제 마음에 깊게 와 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정 복음 교사

라”(16절)

이 구절에서 ‘치다(feed)’라는 말은 poimaino라는 다른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양을 치다. 보살피다. 혹은 돌보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경우 양(sheep)이란 어휘는 probaton 즉 “성숙한 양”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

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17절)

이 문장에서 ‘먹이다(feed)’는 다시 희랍어의 bosko에서 비롯되었으며 “잘 기르(양분 공급)”을 뜻합니다. ‘양’이란 단어 sheep은 역시 희랍어의 probaton에서 유래되었고, “어른 양”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문장은 희랍어로 서로 차별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위한 참으로 훌륭한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저는 상심한 한 스테이크 부장님을 만났는데, 그 분은 울음 섞인 소리로 다 자란 자녀 하나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잃고 교회에서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스테이크 내의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열심히 찾아 도움의 손길을 펼치려 애씁니다. 누군가도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제 아이를 찾아 먹이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이죠.”

주님의 양을 구해 주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누가복음 15:5~6)

가정 복음 교육의 교리적 근거

가정 복음 교육의 교리적 근거는 주님께 서 직접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교회 조직과 행정에 관한 계시가 수록된 교리와 성약 20편을 보면 그 지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 집사, 회원된 자의 의무는…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교회 회원을 돌

아보며”(38, 42절)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를 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며,”(46~47절)

“[장로는]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히 기도할 것과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느니라.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사는 필요에 따라 장로를 돕느니라.”(51~52절)

“교사의 의무는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

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회합하도록 힘쓰며 모든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돌보며”(53~55절)

주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한 지침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성령의 힘이 강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 우리는 성품의 중요한 일면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즉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봉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구세주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하면 연약한 자를 데리고 다니라. 그리하여 지극히 온유하게 가르쳐 깨우치게 하여 연약한 자로 강한 자가 되게 할지이다.

“그러므로 소신권에 성임된 자를 함께 데리고 다니며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선약을 맺게 하고 길을 준비하게 하여 너희가 몸소 맺을 수 없는 선약을 맺게 할지니라.”(교리와 성약 84:106~7)

아내와 저는 여러 도시에 살면서 교회 봉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를 회고해보면 가정 복음 교육만큼 세계 큰 만족을 준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처음 만난 형제 자매들 중에는 처음에는 교회에서 그리 활동적이지 않다가 나중에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보조 조직 회장, 혹은 성전장 및 메이트론의 부름을 받아 봉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과 그 가족 중 일부는 우리와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외과 수술실에서 너무나 힘에 부친 일들을 하다가 기진맥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족을 돌보라 교회 일도 하라... 정말 많이 지쳤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쪼개서 늘 열심히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출발했을

때보다 귀가시에 더 활력을 얻고 행복하게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종종 가정 복음 교사가 받는 상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최소한 제 경우 그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폭음과 폭식,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오는 만족 또한 큼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도 이같이 기록을 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베드로전서 5:2~4)

그와 같은 규율을 발전시키고 개인적인 이해 타산보다는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을 앞세우겠다는 소망을 키우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와 같은 숭고한 변화는 침례 성약을 맺을 때 시작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모사이사서 18:8~10;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 우리는 성품의 중요한 일면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즉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즐겨 봉사를 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구세주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 요한복음 13:15; 베드로전서 2:21; 니파이삼서 18:6, 16 참조)

선한 목자를 좀더 닮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과 권고는 참됩니다. “너는 나의 종이



구세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듯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체득해 우리 자신의 사랑을 친구와 이웃에게 더해 주어야 할, 즉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길러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라. 내가 네게 언약하노니, 네게 영생을 주리다. 나를 섬겨 나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의 양 떼를 한곳에 모으라.”(모사이아서 26:20)

구세주께서 우리의 모범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양 어깨에 어린 양을 메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의 기록한 명령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복을 받아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니”(니파이삼서 27:21~22)

에즈라 태프트 밴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인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말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요한복음 10:17~18 참조) 오늘날 교회에도 선한 목자의 상징적 의미와 필적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양은 헌신 간도 방심하지 않는 목자들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실족해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 즉 복음 안에서 새로 태

어난 사람들은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려 깊은 우정 증진을 통해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 지식이 향상되어 새로운 표준에 따라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보살핌은 그들이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목자의 사랑 어린 보살핌에 힘입어 우리의 젊은이들, 즉 우리 어린 양들은 쉽게 방황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다면 목자가 갖고 다니는 구부러진 지팡이와 따뜻한 팔과 이해심 많은 가슴이 그들을 구해 낼 것입니다. 목자의 보살핌 하에, 양떼에서 벗어나 홀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되찾아 낼 가능성은 아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결혼해 세상적인 삶을 시작한 사람들도 양의 우리로 돌아오라는 권고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에즈라 태프트 밴스의 가르침(1988년), 231~232쪽)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긴 하지만-혹독한 시련과 시험이 교회 회원들 위에 임할 때(교리와 성약 1:12~23; 101:4~5 참조)-사랑이 많은 가정 복음 교사들의 상상한 보살핌이 문자 그대로 영적인 생명체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과연 어떤 목자가 양을 많이 가졌으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아 이리가 양 떼에게 덤벼들어 양을 잡아먹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그가 너희를 그의 울안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의 양이 됨이요, 굶주린 이리가 들어가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리라.”(엘마서 5:59~60)

인생의 고통을 겪고서야 얻어지는 개인의 안전은 부나 명예나 정부 정책으로는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을 지지하는 강한 힘과 더불어 그분의 자비로운 계명들은 자상하고 부드러운 손길들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울안에 있는 모든 양들을 정성껏 보살핌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열의를 다해 그분을 도와 드려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듯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체득해 우리 자신의 사랑을 친구와 이웃에게 더해 주어야 할, 즉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길러야 할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회복된 교회의 거룩한 특성들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



대관장단 및 심이사도 정원회

(앞은 서명, 왼쪽부터) 대관장단: 토마스 예스, 몬슨 부대관장(제1보좌), 고든 비강클러 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제2보좌), (서 있는 사람, 왼쪽부터) 심이사도 정원회: 브라이언 케이 퍼커 회장, 심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엘 톨 패리 장로, 데이비드 버 웨이트 장로, 빌 웨이 부스볼 장로, 리셀 영 벨스 장로, 달린 에이지 옥스 장로, 앨 라셀 볼랜드 장로, 리처드 지 스토프 장로, 로버트 디 해일즈 장로, 제프리 말 플린드 장로, 헨리 미 마이애링 장로

(X) 촬영: N. J. 러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8~30)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 2쪽 참조